



자연이 선사한 신비의 약초, 머위

암세포DNA를 파괴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해

머위는 우리나라의 어느 곳인지 햇볕이 잘 드는 산비탈의 숲이나 골짜기 주변의 물기가 많은 흙에서 자라는 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봄철에 어린잎을 채취해 있는 씹으로 먹고 잎자루는 나물로 무쳐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었다. 민간에서 머위는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종기를 삭이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몸속에 쌓인 독을 풀어주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요즘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머위 잎과 뿌리는 편두롱, 위궤양, 천식에 좋은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알레르기를 없애고 뛰어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간기능을 좋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났다. 이 외에도 머위는 온갖 종류의 염증을 식이는데 효과가 뛰어나다. 최고의 염증 치료약인 동시에 최고의 암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자궁근종과 자궁염, 요도염, 방광염 그리고 남성의 전립선염, 위염, 장염 등에 아주 잘 듣는다고 한다.

항암 효과도 빼어나게 높아서 자궁암이나 난소암, 방광암, 위암, 폐암, 간암 등 온갖 암에도 뛰어난 치료 효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머위는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나물 중에서 염증을 식이는 효과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일 높은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머위를 나물로 볼까 하면 해도 여간해서는 안에 걸리지 않고 걸렸다고 해도 절로 낫는다. 평소애 살짝 데쳐서 씹을 써서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낫는다.

염증은 1차 혹은 2차, 3차의 기형세포이며 암은 4차 기형세포라 할 수 있는데 머위에 들어 있는 약효 성분은 1차

에서 4차까지에 이르는 모든 기형세포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포핵 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하여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 없어지게 만든다.

이쯤되면 머위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암치료약이라 할 수 있으며 머위는 정상적인 세포는 보호하고 기형세포와 염증세포, 암세포만을 골라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한다. 머위를 섭취하면 아무런 부작용이나 탈이 없으면서도 차츰 암으로 인한 통증이 멎고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머위는 매우 훌륭한 정혈제(精血劑)이며 해독제이기도 하다.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온갖 균을 죽이며 몸속에 있는 온갖 독을 풀어준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치를 낮추어 준다. 그러므로 머위는 고혈압과 고

지혈증,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

머위는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다. 썩은 물이 흐르는 하수구 옆이나 돼지똥이나 닭똥 같은 것으로 더러워져서 악취가 나는 물가에 머위를 심으면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져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

썩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시커먼 똥물을 유리병에 담고 머위를 뿌리째 캐서 담가 두었다니 일주일 뒤부터 차츰 물이 맑아지고 악취가 줄어들었으며 부유물과 끈적거리는 성질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맑은 물로 바뀌었고 두 달 뒤에는 사람이 마셔도 좋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었다고 한다. 머위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걸러서 정화하고 머위 잎은 나쁜 냄새를 흡착하여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머위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폐와 간과 콩팥의 정화작용과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이승우 기자



한국불교와 해인신앙의 성립

부처의 가르침이 발생지인 인도(印度)를 벗어나 동쪽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그 근원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을 터지만 점진적으로 내용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른바 대승불교(大乘佛敎)로 표현되는 한자문화권의 불교는, 이른바 정통(正統)의 입장에서 서서, 부처(Buddha)의 입을 빌려 새롭고 독자적인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노라!(여시아문(如是我聞))”라고 시작되는 대승불교의 수많은 경전 기록들은 역사적인 부처가 직접 설했던 말씀이 아니라, 부처를 믿었던 후대의 사람들이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응하여 나름대로 문제해결적으로 제시했던 ‘말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경전 기록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가 설하신 말씀’으로 ‘번어지게’ 된다. 이러한 말씀은 ‘역사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진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믿음은 항상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형태로 신앙인의 가슴에 여전히 살아있다.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 『화엄경』은 중요한 경전으로 손꼽히며, 특히 그 방대한 사상체계로 유명하다. 『화엄경』이 유포된 지역은 불교가 전래한 지역 전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화엄경』에 연원을 둔 해인신앙(海印信仰)이 태동되었다. 그러므로 해인신앙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한국불교의 독자적인 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해인(海印)은 본디 『화엄경』에서 유래한 불교 용어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산스크리트어 Sagara - mudra가 중국에서 한역(漢譯)이 되는 과정에서 ‘해인(海印)’이라고 번역되었다. 넓은 바다에 바람이 그치면 온갖 사물이 남김없이 비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해인의 본래 뜻이었다.

따라서 해인은 애초에는 삼매(三昧)라는 명사를 서술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사용되었다.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海印)의 ‘인(印)’은 명사로서 ‘도장’이라는 뜻으로 풀이되지 않았고, 애초에는 ‘비친다. 찍힌다.’ 등의 동사로 해석되었을 뿐이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몇몇 위대한 종교가들에 의해 6세기 후반에는 중국에서 화엄종(華嚴宗)이 개장되었다. 두순 → 지엄 → 법장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화엄종의 발전사에 따라, 『화엄경』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성과가 점차 모여져서 방대한 화엄학(華嚴學) 관련 서적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상대사(義相大師)가 중국에 유학하여 화엄종의 종지를 배우면서 스승인 지엄에게 제 출하여 인가(認可)를 받았다는 『해인도(海印圖)』는 가장 짧은 『화엄경』 연구서이면서도 그 핵심을 잘 파악한 독창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보물, 해인<30>

제2부 한국불교와 해인신앙

의상은 210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화엄경』을 요약한 자신의 송(頌)을 54각이 있는 도인(圖印)으로 형상화한 『해인도』를 그렸다. 210자의 검은 글자들이 하나의 붉은 선으로 이어져서 구불구불하게 54개의 각을 이루며 끝없이 영원할 불법(佛法)을 상징한 것이 바로 『해인도』이다.

의상이 세상을 떠난 다음 스승인 의상의 법을 남김없이 이어받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의상의 몇몇 제자들이 『해인도』를 새긴 특정한 형태를 가진 물건을 의상으로부터 직접 전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단을 배척하기 위한 독선의 입장이 이른바 정통이라는 종맥(宗脈)을 정립하기 위해, 의상의 몇몇 제자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의 『해인도』를 새긴 물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9세기 초에 이르러 의상의 법맥(法脈)을 이은 순응(順應) 등에 의해 경상남도 함흥군에 있는 가야산에 해인사(海印寺)가 창건되면서, 점차 『화엄경』에 나오는 해인은 일반인에게도 친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스러운 종교 건축물인 해인사와 연관된 해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교리적인 개념보다는 그 신비한 조화력이 더욱 부각하였고, 결국은 구체적인 실물이라고까지 인식되었다.

이제 해인사에는 해인이라는 성스러운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믿어졌으며, 주어진 현실의 고통을 종교적 믿음으로나마 일시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법(佛法)의 신비한 힘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보물인 해인에 대한 신앙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해인사의 3대 보물 가운데 첫째로 해인이 손꼽힌다는 민중들의 믿음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의 어느 시점에 해인사에 실물로서의 해인이 없음을 아쉬워했던 사람에 의해 실제로 주물로 만들어진 해인이 봉안되었다는 사실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편 해인사의 창건에 얽힌 연기설화(緣起說話)인 이거인설화와 해인설화는 동물보은담이라는 점과 해인사와 관련된 설화라는 점에서는 같은 이야기 구조를 지녔다. 반면 세부적인 내용인 등장인물의 차이, 해인이라는 용어의 유무, 명부(冥府) 방문과 용궁(龍宮) 여행의 구별, 보물과 대장경 판각 권선문의 비교 등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당히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이거인설화에 나오는 ‘도장’에 대한 언급은 훗날 ‘용궁을 다스리는 도장인 해인(海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왜냐하면 해인사의 창건과 관련된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도장을 해인(海印)의 인(印)과 관련해 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해인이 보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인사창건연기설화에서 싹트기 시작한 보물로서의 해인에 대한 신앙은, 해인설화로 변모된 형태로 민간에 유포되어 점차 공감의 폭을 넓혀갔다. 18세기 중엽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진록』의 여러 이본 가

운데 하나인 『흑농일기』는 해인을 신통력을 부리는 보물로 인식하였다. 『흑농일기』에서 해인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과 외교사절로 활약했던 사명당이 스승인 서산대사에 게서 전해 받은 신물(神物)로 묘사되었다.

사명당은 해인을 가지고 왜국(倭國)으로 건너가서 여러 차례의 이적(異蹟)을 부리고, 마침내 왜왕(倭王)의 항복을 받아냈다고 전한다. 그 후 우리나라에 돌아온 사명당은 생불(生佛)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해인을 해인사에 감추어두었다고 이야기된다.

따라서 『임진록』이 형성되던 시기에 이르면 해인신앙이 당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오랜 구전(口傳)의 유포 과정을 거친 끝에 서야 비로소 이처럼 해인신앙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해인사의 비밀장소에 사명당이 사용했던 해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해인신앙은 역사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사상사의 전개 과정에서 해인은 『정감록』, 『격암유록』 등의 민중언어서에 조만간 이 땅에 출현할 민중적 영웅인 진인(眞人)이 가지고 올 보물로까지 믿어지게 된다. 나아가 19세기 후반에는 해인사에 정만인이라는 이인(異人)이 나타나 해인을 찾아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신앙적 변용 과정을 거친 해인은 한국 신종교의 하나인 증산교의 교리체계에서는 말대(末代)에 발생할 엄청난 병겁(病劫)을 구원해 줄 성물(聖物)로 표현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경정유도회 등의 일부 한국 신종교 교단에서도 해인신앙은 중심적인 신앙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도관, 승리제단 등 일부 그리스도교계 신종교 교단에까지 해인신앙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이 순간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보물로서 해인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해인신앙의 형성과 일련의 이행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불타(佛陀)의 해인삼매 → 대승불교의 『화엄경』 → 중국 화엄종의 태동 → 의상의 중국 유학과 귀국 → 해동 화엄종의 성립 → 가야산 해인사의 창건 → 해인사 창건연기설화의 유포 → 『임진록』에 해인 관련 기록의 등장 → 『정감록』의 유포와 남조 선신앙의 성립 → 대원군의 풍수 명신에 얽힌 설화의 성립과 확산 → 해인설화의 성립과 확산 → 증산교의 해인신앙 → 개태사 김광영 보살과 야산 이달의 해인신앙 → 『격암유록』의 등장과 해인신앙 → 현대 한국 신종교의 해인신앙*

김택박사/신종교 연구가

∴_0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이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 개운조사(開雲祖師)가 중국의 불공화상(不空和尙)으로부터 경을 전해 받다. ...

지금부터 2000년 전 경상북도 상주(尙州) 땅에 개운(開雲)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 당시에 스님도 많았고, 스승도 많았지만 진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날 수가 없어 천일(千日)을 기도 드리는 중에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일심으로 기원하였다.
약 1년이 지났는데 어디선가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이 스님이 나타나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누구든지 곁에 가기가 싫을 정도였다. 그러나 싫다고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매일같이 지극지성(至極至誠)으로 모셨다. 아무리 극진하게 대접을 해도 특하면 투정을 부리고 달려들어 때리기도 하니 같이 있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기가 어려웠지만 개운은 끝까지 못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날 그 문둥이 스님이 개운 앞에 나타났는데 별안간 금빛으로 화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금빛으로 변한 문둥이 스님이 묻기를,

“내가 네 스승이 될 만하지 않느냐?” 하니 개운이 그 자리에서 백배사례(百拜謝禮)하며,

“과연 스승님이십니다.”
“너는 이제 도(道)를 닦을 그릇이 되었다. 때려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칭찬해도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항복받아 도를 전해 받아도 되느니라.”

그리하여 그 밤에 이르는 대로 좇아 뒷산으로 올라가니 별안간 사방이 대낮 같이 밝아지며 어느새 바위 위에 한 집

이 생기므로, 그 위에 올라 자세한 설법을 듣게 되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밤이 와서 그것을 먹으며 처음으로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7일 만에 책 세 권을 내놓으면서 그 문둥이였던 스님이 자신의 내력을 말했다.

“나는 중국의 불공화상(佛供和尚)이다. 너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진한 고로 내가 문둥이 모습으로 너를 시험하였노라. 이 책을 공부하되 지금은 알릴 때가 아니요 150년 이후에 세상에 전해야 할 책이니라.”

불공화상이라 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중국에서 삼장법사(三藏法師)로 칭하던 유명한 고승(高僧)으로, 태생은 북인도(北印度) 사람이요, 불경을 많이 번역했던 분이다. 불공화상이 천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개운스님 앞에 경(經)을 전하더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 아닐 수가 없다.

개운스님이 불공화상과 작별하고 나서, 증표로 받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20년간을 수도하여 드디어 3과(三課)를 증득하니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고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개운스님이 도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나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고로 발디딤없이 없을 지경이었다.

스님은 지금 당장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봤자 참다운 중생구제가 못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불공화상께 받은 책 세 권을 잘 보존해야 되겠기에 천정 위에 책을 얹고 도배를 한 다음, 큰 용을 불러다가 때가 될 때까지 그 곳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자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바위가 갑자기 갈라지며 개울이 생기고 큰 용이 나왔다. 스님이 바위 위에 주먹으로 동천(洞天)이라는 글씨를 쓰니 바위가 마치 진흙처럼 되어서 지금도 그 글씨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상주 하북에서 원직사로 가는 도중에 그 바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스님은 그곳을 떠나 지리산 묘향대로 갔다고 하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하며, 후에 스님을 개운조사(開雲祖師)라 칭하여 그 이름을 높이 받들었다.

그로부터 약 1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책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되자 우연히 양성(陽星, 1892-1992)이라는 스님이 그것

을 발견하게 되었다. 양성스님은 불문(佛門)에서 잘 알려진 고승(高僧)이다. 책을 살펴보니 참으로 세상에는 없는 진귀한 것인데 한 권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구두비결(口頭秘訣)이라고 했고, 다른 두 권은 능엄경(楞嚴經)인데 보통의 능엄경과 원문(原文)은 같았으나 주해(註解)는 전혀 다른 책이었다. 이 책이 귀중한 책이니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여 청담(淸潭)스님과 고암(古菴)스님이 서문을 쓰고 양성스님이 발문(跋文)을 붙여 몇십 권을 만들어 도(道) 공부하는 사람들에 맡겨 맡겨 보니 그 속에 본인도 한 권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귀한 책을 얻게 되자 처음에는 큰 기대를 걸고 책을 펼쳐 보았으나 ‘능엄경’ 두 권에서는 별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은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도학(道學)이 깊지 못한 나로서는 막연하기만 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귀절이 많아 그다지 큰 진전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여기에는 어떤 감추어진 큰 뜻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끊이지 않으므로 내 자신의 정성이 부족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참회(懺悔)의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 기존의 종문(宗門) 종파(宗派)에 매이지 않고 유불선(儒佛仙)을 종합으로 꿰는 것이 가히 비전(秘傳)의 진수(眞髓)라 할 만한 것이었다. ...

새로이 발심(發心)을 내어 미륵존불(彌勒尊佛)님께 매일 예배하고 목욕제계(沐浴齋戒)하며, 일심참회(一心懺悔)하기를 1년 가까이 하는 동안 거처는 음식 한 끼로 굶주림을 면하고 청수(淸水)를 양심삼야 기도생활을 계속하였다.

무릎을 꿇고 금강좌(金剛座)로 앉아 치성을 드리는 중에 문득 정(定)에 들어선 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을 관하여 보니 그 안에 있는 알지 못했던 뜻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뜻이 원래하여 기존의 종문(宗門) 종파(宗派)에 매이지 않고 유불선(儒佛仙)을 종합으로 꿰는 것이 가히 비전(秘傳)의 진수(眞髓)라 할 만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세상에서 절간에서 배우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 마음속으로 놀라는 바이기도 했다. (계속)*